

비 비 비에 뾰...“올 농사 망쳤다” 농민들 ‘한숨만’

르포-호우 피해 해남 벼 농가·화순 복숭아 농가 가보니

전남 농경지 661ha 침수...3년째 냉해 복숭아농가 수확까지 ‘이중고’ “논콩 90% 이상 버려야” “땀물에 오래 잠겨 벼 뿌리 썩었을 것” 호소 “농사일 계속하기 무섭다” 아우성 속 재해 복구비 산정 기준도 불만

“45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비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건 처음이에요. 키우던 복숭아의 80%가 떨어져버렸으니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지난 22일 화순군 능주면 수동마을에서 만난 배겸(65)씨는 종일 한숨만 내쉬었다.

1만1500여㎡(3500여평)에 복숭아나무 350여 그루를 재배하고 있는데, 최근 장맛비가 내리더니 복숭아 5분의 4가 낙과(落果)했기 때문이다. 배씨의 농장에는 바닥에 떨어진 복숭아들이 밭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모두 터지거나 썩어 곰팡이가 피는 등 악취를 풍겼다.

이 곳 복숭아 농가 대다수는 이번 폭우로 절반 가량의 복숭아를 잃었다. 복숭아나무 1그루 당 2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열매가 맺혀야 정상이지만 50개 이상 열매가 남아있는 나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배씨는 “떨어진 복숭아가 너무 많아 일일이 치울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면서 “이번 비로 최소한 5000여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농사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무섭다”고 말했다.

최근 장마전선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애꿎은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 19일 까지 광주·전남에는 평균 616mm의 비가 내렸으며,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구례의 경우 최대 1146mm 비가 오기도 했다.

이 비로 해남·강진·곡성·보성 등 지역에서 논·밭·과수원 등이 물에 잠기는 등 총 661ha의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전남 곳곳에서 만난 농민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인건비와 비룻값 때문에 농사일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비 때문에 1년 농사까지 망쳤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화순군 능주면에서 26년째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이갑진(65)씨는 장맛비로 250그루의 복숭아 나무에 영근 복숭아들 대부분이 떨어져 썩어버렸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씨는 “끝없이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에 생활조차 힘들어 올해는 외국인 노동자조차 고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3년째 냉해와 장맛비로 제대로 된 농사를 짓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장마 폭우까지 내려 농사를 망쳐버리다니 하늘도 무심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22일 화순군 능주면 수동마을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이갑진(65)씨가 집중호우에 떨어지고 상해버린 복숭아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벼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낭패를 봤다. 같은 날 찾아간 해남군 산이면 농경지는 비를 맞은 벼가 고개를 푹 숙고 있었으며 인근 밭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었다.

지난 집중호우가 남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잇따라 비가 내린 탓에 농민들은 또다시 비에 잠겨버린 농작물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해남군 산이면에서 25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김

승호(57)씨는 16만여㎡(5만여평)의 논과 9900㎡(3000여평) 밭이 이번 장맛비로 모조리 물에 잠겼다.

김씨는 비가 2~3일 정도 침수된 것은 큰 문제 없지만 1주일 넘게 침수가 지속되다보니 수확했을 때 팔 수 없거나 품질이 떨어질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밭에 논콩을 심자마자 비가 1주일 내내 쏟아졌고”며 “병해충 피해라도 줄여서 조금이라도 더 살길 바라는 마음에 농약을 치기는 했지만 전체 농작물의 90% 정도는 버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27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정거섭(57)씨도 “9만9000여㎡(3만여평) 논에 심은 벼가 죄다 쓰러져버려 올해 쌀이 얼마나 나올지 가능성이 안 된다”며 “벼가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1주일 내내 햇빛도 못받고 너무 오래 땀물에 잠겨있어서 뿌리가 다 썩었을 것이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농민들은 의지할 곳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나 보험금밖에 없다면, 손해를 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갑진씨는 “정부 차원의 도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지만 이래라저라 더 이상 농사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지난해 3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재해보험금 25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보고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데 비슷한 금액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주고 일부 농가는 주지 않았다”며 “재해복구비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정체 불명 해외택배 공포...광주·전남 130여건 신고

64건 당국 인계...68건은 오인 신고 ‘브러싱 스캠’ 가능성...개봉 안해야

광주·전남에서 정체불명의 해외 소포나 위험물 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가 잇따랐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정체불명의 해외 소포를 개봉했다가 3명이 어지럼 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된 이후 전국에서 유사한 신고가 잇따랐다.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광주에서는 67건, 전남에서는 65건 등 총 132건의 해외 소포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이 중 64건을 경찰 등 관계당국에 인계했으며, 이들 소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맡겨져 내용물에 위험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나머지 68건은 자기 또는 지인이 보낸 소포로 확인된 경우, 근거 없이 타인의 소포를 신고한 경우 등 위험물 유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오인 신고로 처리됐다.

지난 21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주택에서는 정체불명의 국제 택배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당국이 출동했으나, 실제 내용물은 정수기 필터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광주시 서구 유촌동의 한 빌딩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배송된 택배에서 유해물질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 정밀감식 결과 내용물은 아이브로우(화장품) 세트로 확인됐으며 유해물질은 최종 불검출(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라고 표시돼 있고, 발신지가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으로 된 소포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 것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을 올리려고 상품을 아무에게나 발송하는 ‘브러싱 스캠’의 여파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혹시 모를 테러 위협이 있으므로 주문한 적 없는 해외 우편물을 받으면 개봉하지 말고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판결문서 드러난 수사정보 유출 이권 카르텔

시행사 대표, 경찰·변호사·공무원 등과 사적 모임 통해 비리

사적모임에서 알게 된 자영업자가 경찰 인맥을 이용해 거액을 챙기고 경찰관은 수사정보 유출을 대가로 돈을 받는 이권 카르텔이 판결문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사적모임을 통한 이권 카르텔은 단순히 돈이 오가는데 그치지 않고 변호사 수임 과정에서의 알선·소개 의혹 등 법조계 비리까지 이어져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는 A(64)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술집에서 한달에 한번씩 경찰관·변호사·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명품회’라는 모임을 가졌다. 그는 이 모임을 배경으로 경찰에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는 등의 알선행위를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광주지역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알아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보를 알려주면서 “경찰 인사비, 경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700만원을 받았다. 경찰관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A씨가 2016년 12월 부터 2017년 7월까지 조합장으로부터 챙긴 돈은 6600여만원에 달한다. 일부는 차명계좌로 돈세탁까지 하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장은 A씨가 사적모임을 통해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

여러 경찰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 사무장을 통해 조합장에게 변호사를 알선해 주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도 경찰관 B(56)씨를 통해 자신과 지인들의 지명수배 여부 등을 7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확인받았다.

B씨는 별개로 광주 일선 경찰서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자신이 맡은 교통사망사고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만원을 받고 타 지역 경찰 수사사건을 청탁한다며 2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는 알선수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6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알선수재,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축제주관사 선정 청탁 금품수수 전 광주시장 운전기사 실형 선고

공직자 신분을 활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시장 운전기사(별정직 7급) A(4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500여만원도 추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 B(44)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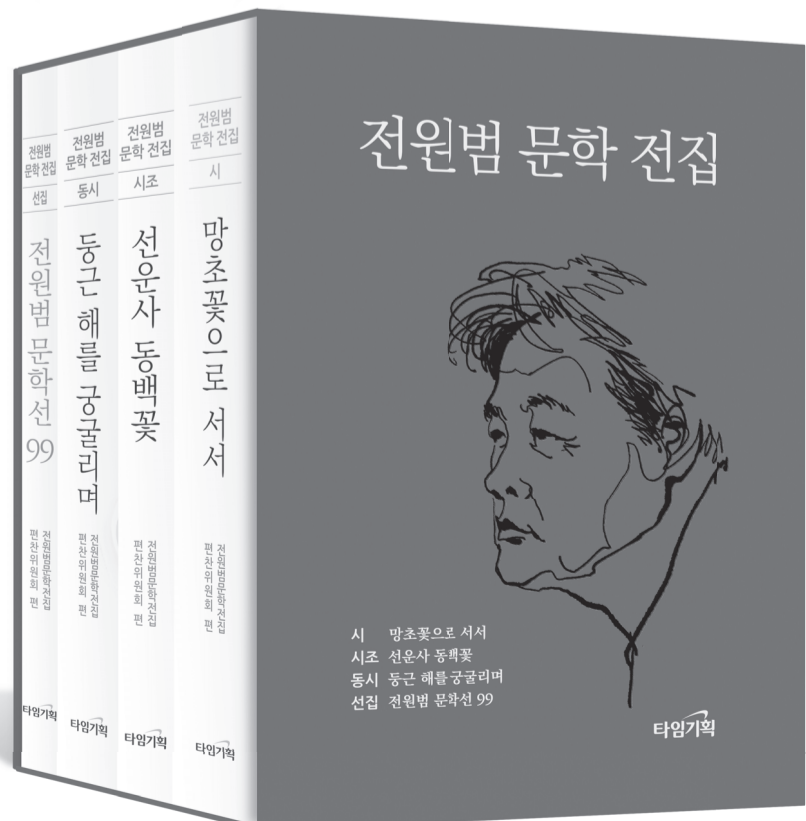
A씨는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지

난 2018년 광주 세계김치축제 주관대행사 운영 수주 대가로 현금, 리스 승용차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전 광주시장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돕다 이 시장이 당선된 뒤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 「둥근 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